



[뉴스] 삼성전자 창립 52주년 “초일류 100년 기업 역사 함께 만들자” 02



Economy

코스피	2978.94 (+8.26)	코스닥	998.57 (+6.24)
금리 (미국 3년)	2.108 (+0.005)	환율 (원/달러)	1176.50 (+7.90) (1일)

# ‘역대급 축제’ 코세페 경기살릴 ‘불씨’ 기대

(코리아세일페스타)

## 17일까지 2053개 업체 판촉행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위드코로나)와 함께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일 시작했다.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총 2053개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참여해 역대 최대 참가를 기록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기를 살릴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전월 대비 3p 오른 106.8로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

다만, 소매유통 부문 4분기 경기 전망은 2분기 만에 기준치 아래를 기록했다. 소비자 and 업계의 전망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이 같은 혼전 속에서 코세페가 소매 유통업계의 숨통을 터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참여 최대 80% 할인, 쇼핑 지원금 제공 대형마트, ‘블랙버스터’ 등 행사

## ◆가을 정기 세일 이어 다시 할인전 펼치는 백화점 업계

백화점업계는 위드코로나로 패션 상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주로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할인판매에 들어간다. ‘코리아 패션 마켓’과 함께 맞물리면서 참여하는 패션 브랜드가 더 많아진 상황이다.

롯데백화점은 2일까지 본점을 비롯해 8개 점이 참여해 여성·남성 패션, 아웃도어, 골프 등 250여개 브랜드의 의류 및 잡화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온라인 행사와 함께 고객몰이에 나선다. 4일까지 신세계 센텀시티점에서 20개 패션 브랜드가 참여한 코리아 패션 마켓 행사를 꾸리고 SSG닷컴을 통해 14일까지 아웃도어 브랜드가 참여

하는 할인행사를 연다. 현대백화점은 14일까지 백화점과 아울렛 등 전국 24개 점포와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더 현대적인 쇼핑 페스타’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쇼핑 지원금을 지원하고 매일 선착순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앞서 백화점 업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4분기 전망치를 전분기보다 9포인트 하락한 98p로 예측했다. 4차 대유행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백화점 집단감염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탓이다. 다만 해외 여행 제한에 따른 반사이익과 보복소비로 인한 명품 매출의 증가세를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 ◆일찌감치 행사 들어간 대형마트, 1천개 넘는 할인품목 마련한 편의점

대형마트는 코세페보다 나흘 가량 앞당겨 행사에 들어갔다. 이들 편의점들도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쏟아내며 코세페를 맞았다.

롯데마트는 지난 28일부터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신선식품 등을 최대 반값으로 판매 중이다. 홈플러스도 다음달 17일까지 3주에 걸쳐 익스프레스와 온라인몰 등 전채널에서 최대 50% 할인을 제공하는 ‘블랙버스터’ 행사를 진행한다. CU는 코세페 기간인 1일부터 15일에 맞춰 1800여개가 넘는 상품을 대상으로 N+1 증정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24는 11월 한 달을 행사기간으로 설정하고 1900여개에 달하는 행사 상품을 준비했다. 1+3, 더블증정 등 가장 파격적인 행사를 준비했다.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열고 있지만 대형마트 업계는 긴장 중이다. 영업시간 제한 등 불리한 요소가 해결되더라도 이미 경쟁자는 온라인 유통채널들로 전환되었다고 봐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입구에 코리아세일페스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



롯데는 신격호 창업주의 도전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롯데월드타워 1층에 흉상을 설치했다. 사진은 흉상 제막식에 참석한 신동빈 롯데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지주

# “창업주 도전과 열정, 롯데의 소중한 자산”

## 롯데 창업주故 신격호 명예회장 ‘탄생 100주년’ 업적·철학 재조명 롯데타워에 흉상 설치, 기념관 열어

오는 3일 탄생 100주년을 맞는 롯데 그룹의 창업주 고(故) 상전(象殿) 신격호 명예회장의 업적과 철학이 재조명된다.

롯데는 롯데월드타워에 신격호 창업주의 흉상을 설치하고, 기념관을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전 흉상 제막식 및 ‘상전 신격호 기념관’ 개관식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송용덕·이동우 롯데지주 대표 및 4개 부문 BU장 등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흉상은 좌대 포함 185cm 높이로, 청

동으로 제작됐으며 롯데월드타워 1층에 전시된다. ‘상전 신격호 기념관’은 롯데월드타워 5층에 약 680㎡ 규모로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신격호 창업주가 일궈낸 롯데의 역사를 미디어 자료와 실물 사료로 확인할 수 있다.

생전 창업주가 신고 현장을 누볐던 낡은 구두와 돋보기, 안경집, 펜과 수첩 등의 집무도구, 명함과 파이프 담뱃대, 즐겨보던 책과 영화 테이프 등도 눈길을 끈다. 롯데제과 최초의 껌 ‘쿨민트’부터 롯데백화점 초기 구상도, 롯데월드타워 기록지까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신격호 명예회장님께서서는 대한민국이

부강해지고 우리 국민이 잘 살아야 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사회와 이웃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하셨다”며 “롯데는 더 많은 고객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롯데를 만들어가는 길에, 명예회장님께서 품소 실천하신 도전과 열정의 DNA는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명예회장의 정신을 깊이 새기면서, 모두의 의지를 모아 미래의 롯데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신격호 창업주 탄생 100주년 당일인 3일에는 회고록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의 출간과 더불어 장학금 수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KT 인터넷 장애 소상공인에 최대 8000원 보상”

## KT, 인터넷서비스 고객보상방안 요금제 5만원 개인고객 1천원 보상 총 보상규모 350억~400억원 정도

KT가 지난달 25일 89분에 걸친 전국 유무선 인터넷 장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000~8000원 수준의 피해 보상을 결정했다. 일반 기업·개인 고객 포함 총 350억~400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KT는 1일 KT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마련하고 지난 25일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인터넷 장애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가능한 신속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으며,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개인 무선 고객의 경우 5만원 요금제 기준 1000원 정도를 돌려받고, 소상공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설명회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인은 평균 7000~8000원 정도를 보상받는다. 총 보상규모는 350억원~400억원 정도로 집계된다.

KT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적용함과 동시에 기존 서비스 이용 약관과는 관계 없이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하고 철저히 실행하기 위해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했다고 발표했다.

KT는 보상대상 서비스로 정한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 중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또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보상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채윤정 기자 echo@

##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洪, 오차범위내 이재명에 앞서... 안·沈 6%대  
▲이재명발 전국민재난지원금 논란... 당정 ‘부담되네’ /사진 뉴스

▲문 대통령, 英 글래스고 도착... 기후 변화 당사국총회 참석  
▲김태호 “본선 필승 카드는 윤석열... 실제 여론 결과로 나와”



▲野 당원 투표율, 첫날 오전 30% 육박...이준석 “서버 터졌다” /사진 뉴스  
▲마크롱, 文 회담 후 페이스북 한글 게재...“한·불 협력 지속”